실무수련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al Training System

김 항 년 Kim, Hang Nyeon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장
Chairman, KIRA Education Board
hangnkim@hanmail.net

머리말

실무수련이란 건축사법에 따라 인증된 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실무수련 제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건축사시험 제도개선 연구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그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요구가 있는 실정이고 필자 또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 글을 기고하게 된 것이다.

실무수련제도 문제점에 대한 고찰

5년제 위주의 실무수련제도

실무수련 제도가 오직 5년제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즉, 5년제에 한해 실무수련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보다 많은 건축학도가 학업을 수학중인 전문대학, 4년제 등은 실무수련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인증 5년제도 2023년 학력 이수자까지만 실무수련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실무수련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축소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미래의 건축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모호한 건축학 인증 인정기준

건축학 인증 인정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별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신청하여 건축학 교육인증 심사를 받기 때문에 5년제 졸업자의 건축학 인증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교마다 상이하고, 인증대학 졸업 여부는 졸업 당시 학교의 인증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즉, 비인증 상태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졸업 당시 학교가 인증 상태인 경우 인증대학 졸업자가 되나, 이와 반대로 인증 상태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졸업 당시 학교가 비인증 상태인 경우 비인증 대학 졸업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흡한 실무수련 관리체계

실무수련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무소 운영 방식의 특성상 일부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는 특정 단계의 업무만 수행하거나, 실무수련자에게 건축물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수련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리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실무수련 체크 항목은 기획, 계획, 중간, 실시설계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설계 프로세스와 공사관리 및 사무소 관리에 대해 수행토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사무소 운영에 대한 수련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실과 규정간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수련제도 운영 현황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2018년 실무수련제도에 대해 건축사와 실무수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무수련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무수련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련항목을 현장의 업무와 연계해 현실화하여 효과적인 실무수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일정부분 나온 점에 비추어 보아, 실무수련제도에 교육을 접목시켜야 하는 방안도 개선사항으로 발굴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즉, 실무수련제도 또한 교육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사 응답결과]

[실무수련자 응답결과]

실무수련제도 내실화

실무수련 항목과 건축사 업무 연계성 강화

실무수련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무수련 항목과 실제 건축사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규정과 현실을 일치시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특성에 맞게 실무수련 항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수련 과목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실무수련 과목을 설계 단계별 설계업무와 프로젝트 관리 및 사무소 관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실무수련과 실제 건축사 업무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건축사시험을 위한 학원수강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실무수련 완료를 통한 우수한 건축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수련 검증 강화 및 현실화

면접시험 신설

면접시험 신설을 통한 실무수련 경험 및 진정성 검증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수련 완료전 실무수련 완료를 위한 최종 심사 성격의 실무수련자 면접시험을 도입하되, 수련 내용의 적정성과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실무수련 완료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수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을 통해 정확히 검증하자는 취지다.

실무수련 기록 서식 개정 및 신설

프로젝트별 경험 기록을 1달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 기록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최초 실무수련일수 465일에 대한 최소 실무수련일수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분을 시간수로 세분화하여 기록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이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하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수련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강화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 중 권역별 지도건축사를 선정한 후 해당 지도건축사를 통해 할당된 지역내 실무수련자들의 실무수련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수

련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취약해 보이는 부분들을 체크하여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신고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을 강화하여 실무수련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서류상 수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무수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건축성장 동력 강화

건축사보 자격시험 신설

실무수련을 신고할 수 있는 인증 5년제 건축학 교육이수자 이외의 건축학교육 비인증 과정(전문대학, 4년제, 5년제 비인증 등) 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건축사보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무수련 신고 자격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 완료 후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무수련 신고 대상자 확대를 통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수 증가 등 미래 건축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학 교육인증 기준 통일

학교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신청하여 건축학 교육인증 심사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한 인증기간 및 교육인증 기준을 통일하여 부당하게 실무수련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인증대학 졸업여부가 졸업당시 해당학교의 인증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졸업전 해당학교의 비인증 전환에 따른 피해자(개별적인 교육이력평가 제도를 통해 교육인증이 가능하지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인재가 실무수련 제도를 통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건축사보 양성교육 신설

건설기술인 기술등급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사보 등급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등급적용 및 현장실무 능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실무수련제도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심화시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실무수련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시험제도 개선과 실무수련제도 개선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건축사시험 제도 개선과 실무수련 제도 개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건축사시험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바로 실무수련제도 개선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에 오로지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실무수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래 실무수련 도입 취지대로 실무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자질도 향상되어 건축의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축산업이 활성화 되는 첩경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서둘러 실무수련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무수련제도가 바로서야 건축사시험 제도가 바로서고 우리나라 건축이 바로서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맺음말

후배 건축학도를 위해 실무수련제도 개선 마련 준비를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왜냐하면 건축사시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무수련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되어 우리도 프리츠커상 배출국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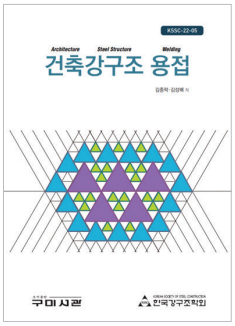
참고문헌

1.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9. 2
2.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2020.07

필자 소개

김항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원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1~2013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지내며 건축사등록원 준비 및 구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건축사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건축 강구조 강재와 용접



이 책은 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사업관리, 감리, 가공,검사, 조립설치, 현장공사 등 관계기술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강재의 특성과 화학성분의 영향, 조직에 관한 기본지식을 편하게 이해하도록 정리하려고 했다. 폭넓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전문적 기술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생소한 철강재의 활용과 제강법 변천의 전환기 자료를 흥미롭게 이해하고, 재해 재난과 사고로 부터 교훈을 다시 상기하도록 정리하였다. 강구조 건축물의 이음·접합부의 강도특성과 소성변형능력 확보는 강재의 화학성분 조성과 조직 등 강재의 특성을 파악과, 용접상세, 용접조건과 절차 등 용접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구조의 제작과, 현장 조립,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골조의 생산공정관리, 적정품질 확보에 필요한 기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락 김성배 | 2023년 1월 11일 | 구미서관